

1000만 관광도시 향해 ‘활시위’

익산시, 천만 관광도시 비전 선포식 개최

정현을 시장 “관광객에 색다른 쉽고 경험 선사”

익산시가 1,000만 관광도시를 향해 활시위를 당긴다. 익산시는 지난 7일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1,000만 관광도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해 김경진 익산시의장, 관광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자리했다. 먼저 익산시립합창단의 중창 공연이 대장정의 시작을 알렸고, 김세만 익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가 향후 익산시 관광사업의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이어 익산 관광산업의 발전과 성공을 기원하는 화려한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시는 이 자리에서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레이코리아 △(여)행공방 △윈토피아와 철도관광객 모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들 기관은 익산시와 공동으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한마음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시는 이 자리에서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레이코리아 △(여)행공방 △윈토피아와 철도관광객 모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들 기관은 익산시와 공동으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한마음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시는 이 자리에서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레이코리아 △(여)행공방 △윈토피아와 철도관광객 모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들 기관은 익산시와 공동으로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한마음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익산시, 행복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온힘’

모자보건사업 31억1200만원 투입해 단계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임산부 건강 관리·출산지원 등

익산시가 저출생 시대 임신·출산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한다. 익산시는 올해 모자보건사업에 31억 1,200만원을 투입해 준비부터 임신, 출산, 양육까지 단계별로 촘촘하게 지원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우선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연령별 지원 기준을 낮추고 모든 난임부부에 동등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출산할 때마다 지원 횟수 25회를 새롭게 적용해 다자녀 계획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246명의 난임부부 시술을 지원해 112명(45.5%)이 임신에 성공했다. 올해 신규 사업인 ‘영구적 불임임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사업’은 오

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정자·난자를 냉동·보관해 가임력 보전을 돕는다. 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임산부의 건강 관리와 출산 가정 돌봄에도 힘쓴다. 임신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은 익산시가 도내 최초로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익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4주 이상 출산 후 1년 이내에 있는 임산부에게 임신 1회당 산전·산후 건강관리비 40만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을 추진해 건강한 임신을 돕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신청 기한을 출산일로부터 기존 30일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

자 정체성 확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최근 익산은 각종 열차 관광상품, 야간형 축제, 어린이 놀이공간 확대 등을 통해 누구나 취향에 따라 가볍게 놀러 올 수 있는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왕궁보석테마관광지’에는 놀이 체험시설인 롤글라이더가 새로 개장해 나무 사이로 왕궁저수지 위를 나는 듯한 재미를 선사한다. 서동생태공원에는 어린이 특화 테마 공간인 ‘어린이 숲속 테마마을’을 조성하고, 신흥근린공원에는 도심 속 밥을 즐기는 ‘빛의 정원 조성사업’이 진행된다. 시는 이 밖에도 단체관광객을 위한 활동·체류비 인센티브 지급과 마루사자나 왕궁유산을 활용한 컨벤션 유치 등 유인책도 마련했다. 올해 시는 익산의 맛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 ‘미식산업계’를 신설해 미식 관광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라는 자부심을 갖고 1,000만 관광 시대를 활짝 열어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익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차원이 다른 쉽고 색다른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 새만금 마라톤대회 접수 시작

내달 17일까지 선착순 접수

봄철 군산시의 대표적인 스포츠 행사인 ‘2025 군산 새만금 마라톤대회’가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 오는 4월 6일 군산시 일원에서 열리는 ‘2025 군산 새만금 마라톤대회’는 군산시와 대한육상연맹이 공동주최하고 전북 특별자치도 육상연맹과 군산시 육상연맹이 주관한다. 대회는 풀코스, Half&Half, 10km, 5km 등 4개 부문으로 풀코스는 5만5,000원, 하프&하프(2인) 9만원, 10km 3만5,000원, 5km 1만5,000원이며, 참가자들은 군산의 근대 문화유산 일원과 금강호의 수려한 풍경을 질주하게 된다. 군산시는 봄철 군산의 정취를 만끽할 1만여명의 마라톤 참가자 접수를 3

월 17일까지 받는다. 접수는 선착순이다. 특히 올해 대회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참가자들의 원활한 코스 운영을 위해 지난 11월 대한육상연맹 코스 실측을 통해 코스를 변경하고 세계육상연맹(WA)에 변경된 코스를 공인받은 국제마라톤대회로 진행된다. 이런 위상을 입증하듯 ‘2025 군산 새만금 마라톤대회’는 전북 지자체 체육사업 중 유일하게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국비 2억1,000만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참가 접수 및 자세한 내용은 대회 누리집(www.gunsanmarathon.com)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 사항 대회 사무국(☎ 063-452-942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명일아파트 인근 도시계획 도로 현장 찾아

익산시의회 최종오 의원·정현을 익산시장 등

지난 5일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오 의원은 정현을 익산시장과 20년째 방치되고 있는 명일아파트 인근 도시계획도로 현장 찾았다. 모현동 명일아파트 인근 도시계획도로 건설은 20년째 인근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최종오 의원은 지난 제26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명일아파트 인근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종오 의원은 이날 정현을 시장과 현장을 확인하며 “명일아파트를 시작으로 이편한세상 아파트를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되면 주민들의 소통과 출퇴근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인근 주민들 또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일대가 관리되지 않아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어 주민생활에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도로개설의 시급성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친환경 수소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1대당 3450만원·총 50대 대상

익산시가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 차량의 대중화를 위해 수소자동차 구매를 지원한다. 시는 17억원의 예산으로 수소자동차 50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보조금은 1대당 3,450만원이며 5대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택시 등에 우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익산시에

30일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나 법인, 단체다. 개인, 법인, 단체당 1대를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친환경 수소차 판매사를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판매사가 ‘저공해차량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시는 자동차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예산 소진 시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빈집 정비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21일까지신청

군산시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나섰다. 시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자 오는 21일까지 ‘빈집 정비사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빈집 정비사업’은 시에서 빈집을 철거한 뒤 주차장 또는 마을 텃밭 등으로 조성해 지역 주민들의 공동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사업 예산은 군산시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보한 사업비 4억4,500만원으로 올해 빈집 약 50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대상이 되는 빈집은 1년 이상 사용 또는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로 빈집 철거 후 3년간 공공부지 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빈집 소유주는 해당 빈집 소재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산시청 주택행정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STAY 창업가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군산시가 올해도 (예비)창업가와 창업기업의 직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군산 STAY 창업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예비)창업가와 창업기업의 직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LH 전북본부와 협력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선정된 최대 2년(24개월) 동안 임대주택의 보증금(최대 350만원)과 월 임대료(월 최대 1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자격은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로 예비창업자, 업력 7년 미만의 기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올해 신청 접수 기간은 2월 21일까지이며 군산시청 6층 기업지원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기업지원과 창업지원계(☎ 063-454-439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